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4.169>

JCCT 2024-7-18

한국인의 세대 판별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복지태도와 가치관을 중심으로

An Exploratory Study upon The Factors for Discriminating Generations: Focusing on Welfare Attitudes Values on Social Issues

김신영*

Sin-Young Kim*

요약 이 연구는 한국인의 연령집단 또는 세대를 구분하는데 기여하는 요인을 밝혀보고자 한다. 주된 관심을 가지고 분석에 투입한 변수는 응답자의 복지에 대한 태도이나, 그 밖에도 정치적 성향, 형평의식, 교육수준, 한국사회의 불평 등에 대한 인식, 세금에 대한 인식, 그리고 건강상태 등의 변수들도 모형에 함께 투입되었으며, 따라서 이 연구는 일종의 탐색연구라고 할 수 있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22년도 수집된 한국복지패널 17년차 년도 자료이며 선형판별분석기법이 활용될 것이다. 연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세대구분에 대한 이론적 검토가 과거 국내외 문헌을 통해 진행될 것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세대구분에 의미있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계량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주관에 의해 세대구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즉 세대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는 정치적 성향과 가치관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진행할 것이다. 가치관에 대한 검토에서 복지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이 논의 될 것이다. 다음으로, 분석 모형, 분석기법, 그리고 분석에 투입될 변수가 소개될 것이다. 분석결과의 제시 및 요약 후 이론적 및 방법론적 제언을 수행하고자 한다.

주요어 : 한국인 세대 구분, 세대판별요인, 선형판별분석

Abstract This study purports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contribute to the classification of age groups or generations of Koreans. Independent variables such as respondents' attitudes toward welfare, attitudes toward equity, education level, perception of inequality in Korean society, tax awareness, and health status are included in the model that were put into the analysis with the main interest. Since this study does not construct any hypothesis prior to analysis, the nature of this study can be said exploratory. The data utilized for the analysis are from the 17th year of the Korean Welfare Panel collected in 2022, and a linear discrimination analysis technique will be used. First and foremost, a theoretical review of the generational classification will be conducted through domestic and international literature in the past. To date, there is no quantitative studies in Korea that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generational classification. Therefore, in this study, a theoretical review of political tendencies and values, which are estimated to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generational classification, t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generations, will be significant. The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 welfare will be discussed in the review of values. Next, analysis models, analysis techniques, and variables to be used in the analysis will be introduced. After

Key words : Classification of Age Groups as Generations, Factors for Generational Classification, Linear Discriminant Analysis,

*정희원, 한양사이버대학교 실버산업학과 교수 (단독저자)
접수일: 2024년 4월 19일, 수정완료일: 2024년 5월 20일
게재확정일: 2024년 6월 7일

Received: April 19, 2024 / Revised: May 20, 2024

Accepted: June 7, 2024

*Corresponding Author: kimsy@hycu.ac.kr

Dept of Silver Industry, Hanyang Cyber Univ. Korea

I. 서론

이 연구는 한국인의 연령집단 또는 세대를 구분하는데 기여하는 요인을 밝혀보고자 한다. 주된 관심을 가지고 분석에 투입한 변수는 응답자의 복지에 대한 태도이나, 그 밖에도 정치적 성향, 형평의식, 교육수준, 한국 사회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응답자의 건강상태 등의 변수들도 모형에 함께 투입되었으며, 따라서 이 연구는 특정 가설을 검증하기 보다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군을 폭넓게 살펴보는 일종의 탐색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출생연도에 의해 기계적으로 세대를 구분한 기존의 계량연구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과연 연령집단에 의해 구분되는 세대가 사회과학에서 유의미하게 다르는지 많은 변수들에 의해 의미있게 구분되는지의 문제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연령에 의한 기계적 세대구분 자체가 한국사회 구성원들을 의미있게 구획해내는 것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의 간접적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22년도 수집된 한국복지패널 17년차년도 자료이며 판별분석기법이 활용될 것이다. 연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세대구분에 대한 이론적 검토가 과거 국내외 문헌을 통해 진행될 것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세대구분에 의미있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계량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주관에 의해 세대구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즉 세대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는 정치적 성향과 가치관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진행할 것이다. 가치관에 대한 검토에서 복지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이 논의 될 것이다. 다음으로, 분석 모형, 분석기법, 그리고 분석에 투입될 변수가 소개될 것이다. 분석결과의 제시 및 요약 후 이론적 및 방법론적 제언을 수행하고자 한다.

II. 본론

1.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종속변수인 세대에 대한 기존 논의들과 세대 구분에 기여할 것으로 추정되며 분석모형에 투입될 많은 변수들 가운데 ‘가치’와 ‘복지태도’에 대한 과거 논의들을 주요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치

사전적으로 가치는 “개인의 의식구조 속에 내면화되어 있는 평가적 성향”으로 정의될 수 있다. 가치에 기반한 개인의 가치관은 매우 다양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태도, 선호, 생활양식, 규범적 틀, 신념체계 등이 있다. 많은 경우 가치관은 가치의식 또는 가치지향과 유사한 의미의 교환가능한 개념으로 사용되며, 개인은 자신의 가치관에 기반하여 보다 넓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의식을 발전시키게 된다. 직업관, 가족윤리, 성윤리, 법의식, 그리고 국가나 민족의식 등이 대표적이다.

일반적으로 가치의 역할은 개인의 선택과 삶의 목적(또는 의미) 등을 결정하게 된다. 가치가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유는 개인은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의해 삶의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과 결정, 예컨대 옳고 그름, 성공과 실패인지, 중요함과 부차적임, 바람직함과 그렇지 못함, 아름다움과 추함, 등을 결정하는 준거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집단적 가치는 사회변동의 중요한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사회과학의 고전 중 하나로 여겨지는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은 집단이 공유하는 가치가 주류 가치로 발전하게 될 경우 사회적 수준의 물질적 변동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1].

실증연구를 통해 드러난 한국인의 대표적 가치를 요약해보면, 첫째, 집단주의에서 벗어나 ‘자신과 가족’ 중심의 개인주의로의 변화, 둘째, 평등을 강조하는 탈권위주의 지향, 셋째, 강한 자기 주장성 경향 감소와 불확실성 회피 경향의 증가, 넷째, 여유 있는 마음의 갈망, 다섯째, 미래보다는 현재를 중시하는 경향, 여섯째, 남녀평등의식의 확대에 기반한 혼전순결이나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인식 변화, 일곱째, 물질적 풍요에 대한 강조 등이 있다[2].

2). 복지태도

일반적으로 복지태도는 복지 및 관련 사회 현상에 대한 상황 인식과 정책 인식을 포괄하며 현실의 불평등이나 복지제도에 대한 지향과 의견 등으로 표출되는 평가적 판단으로 정의된다[3]. 복지태도에 대해서는 다수의 실증연구가 존재하며 주로 개인의 복지태도의 차이

를 규명하는 요인을 찾아 내는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대표적으로 개인이 가진 불평등에 대한 인식(경제적 불평등, 소득불평등, 세금 불평등 등을 포함)에 대한 연구가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불평등 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친복지적 태도를 보이며 반대의 경우, 즉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복지태도에 대한 중립적이고 비일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4][5]. 한편 불평등 인식, 정부 책임 인식, 세금 부담 수용의 세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현상 선호 및 유지’, ‘보수적 이념에 의한 복지반대’, ‘비용 회피를 전제로 한 복지지지’, ‘비용 수용적 복지 지지’라는 네 가지 유형의 복지 태도를 귀납적으로 이끌어 내는 연구도 존재한다[6].

3). 세대

사전적인 차원의 세대 구분은 크게 4가지가 존재한다. 첫째, 친족 구성에서의 세대(항렬), 둘째, 대략적으로 동일한 시기에 출생하여 특정기간에 발생한 사회적 이자 역사적 사건들을 동일하게 경험한 ‘코호트(cohort)’ 셋째, 생애주기상 동일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특정 역사적 시기를 산 사람들이 그것이다 사회과학에서 연구주제 또는 소재로서 지위를 차지하는 세대는 사회사적 과정 속에 자리 잡은 연령집단의 경우이다. 다시 말하자면, 대략의 출생 시기를 공유한 사람들이 특정 시기의 역사적 경험을 집단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발생하며 동시대의 다른 연령 집단(들)과는 뚜렷히 구분되는 행위, 감정, 사고방식, 또는 가치관을 가질 때 이 연령집단은 세대로서 분석대상 지위를 갖게 된다[7][8].

독일 사회학자 만하임은 ‘세대’라는 개념은 다면적이며 따라서 정의내리기 쉽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만하임에 따르면 세대는 단순히 동시대에 태어난 개인들로 이루어진 생물학적 집단으로서가 아니라 동일시기에 출생한 개인들이 동질적인 문화와 역사적 경험을 통해 강한 연대감을 갖는 공동체, 즉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집단을 의미한다. 그에 따르면 세대란 일종의 사회적 위치이며 특정 세대가 일정한 사회적 위치를 점유한다는 것은 그 집단이 연령이라는 인구학적 특성 이외에 행위, 감정, 사고방식을 지향하는 준거틀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후에 만하임은 동일한 역사문화권에서 동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동년배로서의 위치만을 공유

하는 것을 ‘세대위치’(generation location)라고 명명하고 세대위치를 공유한 사람들이 특정의 역사적 시간을 경험하면서 연대성을 갖게 되고 새로운 사회변동을 만드는 힘을 형성할 때 이른바 ‘실제 세대’(generation as an actuality)를 구성한다고 주장하였다[9].

이 연구와 관련하여, 일단 ‘코호트’ 또는 ‘연령집단’에 비해 세대라는 어휘가 갖는 모호성은 분명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세대는 친족상황에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즉 세대는 부모-자녀 세대의 경우에서와 같이 친족상의 계보측면에 대한 의미로만 사용해야 하며 생애주기상 특정 시기의 출생을 강조하고자 한다면 ‘연령집단’을, 동일시기 출생 집단의 사회적 유사성을 강조하고자 한다면 ‘코호트’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10] [11]. 같은 맥락에서 세대의 개념이 복수의 의미로 혼용되고 있는 점 또한 지적되고 있다. 이 연구의 경우, 20대와 30대를 ‘청장년층’으로, 40대와 50대를 ‘중장년층’, 60대와 70대를 ‘노년층’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코호트 개념에 보다 가깝다고 할 수 있다.

2. 분석자료 및 변수

이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한국복지패널 17차년도 조사결과이다. 한국복지패널은 2006년도에 7000여 가구를 시작으로 1차년도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이 연구에서 활용된 17차년도 조사는 응답자들의 복지태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위하여 다양한 문항을 활용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분석의 대상은 조사 시점 당시 20세에서 80세까지의 연령대에 속한 응답자 집단으로 한정하였다. 이 연구는 출생연도에 의해 구분되는 한국의 세대집단들의 구분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는 변수들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종속변수인 세대집단은 조사시점 당시 20세에서 40세를 청년세대, 41세에서 59세까지를 중장년세대, 60세에서 80세를 노년세대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의 독립변수는 크게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응답자의 정치적 태도와 관련하여 ‘정치적 성향’은 원자료인 5점 척도(‘매우진보’, ‘진보’, ‘중도’, ‘보수’, ‘매우 보수’)를, ‘정치에 대한 관심’ 역시 원자료인 5점 척도(‘매우 관심’, ‘상당히 관심’, ‘다소 관심’, ‘별

로 관심 없음, '전혀 관심 없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복지에 대한 태도는 '성장 vs 분배' ('성장만 중요', '분배보다 성장이 중요', '성장보다 분배가 중요', '분배만 중요'), '복지증가와 노동의욕'('매우 그렇다',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복지 위한 증세'('매우 찬성', '찬성', '대체로 찬성', '보통', '대체로 반대', '반대', '매우 반대'), '보편 vs 선별'('모든 국민대상', '소득 하위 70%', '소득 하위 50%', '소득 하위 30%', '가난한 사람 대상')에 대한 원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세금 관련 태도는 고소득층, 중간층, 저소득층의 세금 수준에 대한 인식('지나치게 높다', '꽤 높다', '적절한 편이다', '꽤 낮다', '너무 지나치게 낮다')과 현재 한국의 조세형평 정도('매우 그렇다',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 대한 원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인의 가치관과 관련하여 '어린 자녀는 집에서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 '국민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빈곤층은 대부분 게으르다', '부모를 모실 책임은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 '대학교육까지 모든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의 문항들에 대한 원응답자료('매우 동의', '동의', '동의도 반대도 아님', '반대', '매우 반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다음으로 현재 한국의 계층구조와 관련하여 '현재 한국의 계층구조에 대한 인식', '미래의 바람직한 계층구조**', 그리고 '현재 한국의 소득격차에 대한 인식'('매우 평등'에서 '매우 불평등'까지 7점 척도)에 대한 원응답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빈곤원인에 대한 개인 VS 사회 책임 관련 문항들을 살펴보면, 개인을 빈곤원인으로 지목하는 원문항('개인적인 절약과 적절한 가계(돈)관리 부족', '개인적인 동기와 스스로의 노력 부족', '개인적인 책임감 및 자기규율의 부족(음주, 도박 등)'),에 대한 응답자료를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Cronbach alpha = .727)을 통하여 상관관계를 확인한 다음 합산하여 단일변수로 구성하였다. 사회구조를 빈곤원인으로 지목하는 경우 역시 동일한 과정을 거쳐 새로운 변수를 구성하였다('기업과 산업에서의 낮은 임금', '충분한 교육기회 제공의 부족', '좋은 일자리 공급의 미흡'/Cronbach alpha = .748).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교육수준('초등학교 졸업' - '대학원 박사')과 건강상태('매우

건강', '건강한 편', '보통', '좋지 않은 편', '매우 안 좋음')는 원문항의 응답결과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3. 분석기법: 선형 판별 분석

선형판별분석은 종속변수의 각 집단에 대해 공통된 공분산 행렬을 가정하여 집단간 분산을 최대화하는 하나의 선형 판별함수를 찾게 된다. 선형 판별분석의 목적은 종속변수 범주의 구분에 유의하게 하는 독립변수 확인, 확인된 독립변수를 활용하여 판별함수 구축, 판별 능력 측면에서 개별 독립변수들의 상대적 중요도 파악, 판별함수의 판별력 평가 및 새로운 판별 대상에 대한 범주 예측 등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판별분석의 가정은 첫째, 판별함수 도출에 사용된 개체들이 다변량 정규분포로부터 도출된 표본이어야 하며, 둘째, 판별변수의 부분집단들의 모집단 분포가 동일한 공분산행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선형판별분석의 단계는 먼저 개별 사례가 속한 집단을 구분하는데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독립변수를 찾은 다음, 집단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독립변수들의 선형결합변수, 즉 판별함수를 도출한다. 다음으로 도출된 판별함수에 의한 분류의 정확도를 파악한 후, 도출된 판별함수를 이용하여 새로운 사례가 속하는 집단을 예측하게 된다.

판별함수는 다음과 같다.

$$Z = B_0 + B_1X_1 + B_2X_2 + B_3X_3 \dots + B_nX_n$$

Z: 판별점수, B₀: 판별상수, X₁, X₂...X_n: 판별변수, B₁, B₂...B_n: 판별계수

III. 분석결과

먼저, 모집단의 공분산 행렬이 동일성 가정을 검증한 결과, 유의확률이 .05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동일성 가정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ilks의 람다값(집단내 제곱합/전체 제곱합)을 통하여 개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응답자의 연령집단 소속 구분을 유의하게 판별해 내는지 여부를 살펴 본 결과, 먼저 정치관련 변수는 '정치적 지향'과 '정치에 대한 관심정도'는 유의한 판별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복지태도 관련 변수에서는 '사회서비스 대상_보편 VS 선별',

표 1. 집단 평균의 동질성 검정결과
 Table 1. Tests of equality of group means

변수	Wilks's 람다	F	df1	df2	p
교육수준	.667	607.451	2	2435	.000
건강상태	.818	270.140	2	2435	.000
한국사회 계층구조	1.000	.254	2	2435	.776
지나친 소득격차	.998	2.603	2	2435	.074
미래의 바람직한 계층구조	1.000	.219	2	2435	.803
개인책임강조	1.000	.109	2	2435	.897
사회구조책임강조	.971	36.305	2	2435	.000
성장과 분배	.999	1.515	2	2435	.220
사회복지와 노동의욕	.966	42.499	2	2435	.000
양육은 어머니의 의무	.946	69.873	2	2435	.000
기초생활수급자의 계층	.948	66.637	2	2435	.000
부모부양 책임은 자식에게	.999	1.133	2	2435	.322
대학교육까지 무상	.976	29.373	2	2435	.000
유치원, 보육시설 무상	.999	1.072	2	2435	.342
고소득층의 세금수준	.994	7.747	2	2435	.000
중간층의 세금수준	.987	15.734	2	2435	.000
저소득층의 세금수준	1.000	.081	2	2435	.922
세금형평	.994	7.371	2	2435	.001
복지위한 증세	.993	8.838	2	2435	.000
사회서비스 대상	.969	39.209	2	2435	.000
정치에 대한 관심도	.992	9.681	2	2435	.000
자신의 정치적 성향	.959	52.362	2	2435	.000

표 2. 정치적 성향 집단에 대한 판별분석 결과.
 Table 2. Summary of 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s

	표준화 정준판별 함수계수		구조형렬
	정준판별 함수계수	정준판별 함수계수	
교육수준	.722	.614	.787*
건강상태	-.420	-.534	-.525*
한국사회 계층구조	.028	.024	.261*
지나친 소득격차	-.014	-.021	-.230*
미래의 바람직한 계층구조	-.005	-.007	.208*
개인책임강조	.022	.013	-.189*
사회구조책임강조	-.156	-.084	.095*
성장과 분배	.024	.037	-.033*
사회복지와 노동의욕	.087	.054	.229
양육은 어머니의 의무	.154	.152	.013
기초생활수급자의 계층	.126	.124	-.015
부모부양 책임은 자식에게	.010	.011	.004
대학교육까지 무상	-.155	-.139	.000
유치원, 보육시설 무상	.075	.084	-.193
고소득층의 세금수준	.001	.001	-.167
중간층의 세금수준	-.056	-.081	-.123
저소득층의 세금수준	-.005	-.006	.031
세금형평	-.003	-.003	.010
복지위한 증세	.174	.116	.003
사회서비스 대상	-.077	-.060	.038
정치에 대한 관심도	.227	.223	-.001
자신의 정치적 성향	-.130	-.139	-.013
상수		-2.658	

Eigen Value	Cononical Correlation	Wilks' Lamda	χ^2	df	p
.806	.668	.963	21.805	21	.199

표 3. 함수계수에 의한 분류결과
 Table 3. Classification results

실제 집단	집단 중심치	예측되는 소속집단(%, 명)			사례수	분류 정확도 (%)
		청년	중장년	노년		
청년	1.365	70.8	26.8	2.5	325	
		230	87	8		
중장년	.614	30.9	48.1	20.9	989	65.2
		306	476	207		
노년	-.935	7.5	15.7	76.8	1124	
		84	177	863		

‘복지위한 증세’, ‘사회복지의 노동의욕 감소 효과’, ‘성장과 분배’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세금 관련 변수 중에서는 ‘고소득층 세금수준’, ‘중간층 세금수준’, ‘세금형평성’이 유의한 연령집단 판별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관 관련 변수 중에서는 ‘대학까지 무상교육’, ‘기초생활수급자의 태담’, ‘어린 자녀는 집에서 양육할 필요’, 그리고 ‘빈곤원인 사회구조 때문’, ‘주관적 건강상태’, ‘교육수준’이 유의한 판별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해서 Wilks의 람다 값(.963)을 통해 살펴본 결과 ($p = .000$), 판별함수에 의한 집단간 판별점수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판별변수와 실제 판별그룹간의 관계 정도는 나타내는 정준상관계수는 .668로 나타났다. 중회귀분석에서 표준화 회귀계수에 해당하는 표준화 정준 판별함수 계수를 통해 독립변수 판별효과와 상대적 크기를 살펴본 결과, 종속변수의 판별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는 ‘교육수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주관적 건강상태’, ‘정치에 대한 관심정도’, ‘복지위한 증세’ 순으로 나타났다. ‘빈곤원인 사회구조 때문’, ‘어린 자녀는 집에서 양육할 필요’, ‘대학까지 무상교육’ 등도 상대적으로 판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의 판별점수에 대한 평균값을 나타내는 집단 중심 값은 청년이 1.365, 중장년이 .614로, 노년이 -.935로 세 집단의 평균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 판별함수에 의한 집단 분류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판별함수가 실제 집단을 얼마나 정확히 분류하였는지를 나타내는 분류정확도(hit ratio)를 살펴본 결과, ‘청년’집단의 70.8%, ‘중장년’ 집단의 81.2%, ‘노년’ 집단의 76.8%가 정확히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장년이 나 노년집단에 비해 중장년집단의 분류 정확도가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IV. 토 론

분석 결과, 판별함수에 의한 집단 간 판별점수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판별효과를 보이는 변수들은 정치관련 변수는 ‘정치적 지향’과 ‘정치에 대한 관심정도’는 유의한 판별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복지태도 관련 변수에서는 ‘사회서비스 대상 보편 VS 선별’, ‘복지위한 증세’, ‘사회복지의 노동의욕

감소 효과, '성장과 분배'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세금 관련 변수 중에서는 '고소득층 세금수준', '중간층 세금수준', '세금 형평성'이 유의한 연령집단 판별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관 관련 변수 중에서는 '대학까지 무상교육', '기초생활수급자의 나태함', '어린 자녀는 집에서 양육할 필요', 그리고 '빈곤원인_사회구조 때문', '주관적 건강상태', '교육수준'이 유의한 판별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의 판별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는 '교육수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주관적 건강상태', '정치에 대한 관심정도', '복지위한 증세' 순으로 나타났다. '빈곤원인_사회구조 때문', '어린 자녀는 집에서 양육할 필요', '대학까지 무상교육' 등도 상대적으로 판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분류정확도(hit ratio)를 살펴 본 결과, '청년'집단의 70.8%, '중장년' 집단의 81.2%, '노년' 집단의 76.8%가 정확히 분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장년이나 노년 집단에 비해 중장년집단의 분류 정확도가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V. 결 론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흥미롭다. 첫째, 많은 변수들이 연령집단을 의미 있게 구분해주고 있음을 볼 때, 비록 출생시점에 의해 도출된 수치에 의해 단순 구분된 연령집단이긴 하나 사회적 사실(social fact)로서 고유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이 간접적이거나 실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독립변수가 갖는 판별효과의 상대적 크기를 보면, '교육수준'이나 '주관적 건강상태' 변수가 다른 변수들(태도나 가치관 관련)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태도나 가치관보다는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가까운 교육수준이나 건강상태(주관적)가 연령집단 구분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령집단에 의한 독립 변수들의 유의성이 강하게 관찰됨에도 불구하고 청년이나 노년집단에 비해 중장년집단에 대한 분류 정확도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통계학적으로 볼 때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중간에 위치한 중장년세대에서 나타나는 독립변수들의 변량이 양측에 위치한 청년이나 노년세대에 비해서 크게 나타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만약 분석에서 중장년 세대를 제외하고 청년과 노년만을 구분하는 모

델을 구축하였다면, 분류정확도는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 만하임은 이를 “동시대인의 비동시성”이라는 개념으로 명명하면서 세대들이 각각 가지게 되는 양가적 감정(ambivalence)의 일반성에 주목한다.

References

- [1] Hyunjoo Sohn, Youngjo Song. “Social Change and Future Preparation”. *Social Science Research*, vol 21, no 1, pp. 305-333. 2018.
- [2] Kyunghee Lee. “The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Dual Value Structure of Korean People”. *Ethics Study*, vol 84, pp. 33-52. 2012.
- [3] Sanghoon Ahn, Youngmi Kim, Soowan Kim, “Welfare Attitudes of Korean People: Changes and Formation of Cleavage Structure”, *Study of Public Health and Society*, 41(1), pp. 42-60, 2021.
- [4] Halla Lee, Mira Lee,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Koreans' Welfare Attitudes: Focusing on Potential Effects of Equity Consciousness”, *Study of Public Health and Society*, 30(2), pp. 254-286, 2010.
- [5] Seunghyun Yeo. The Consciousness of Economic Inequality and Welfare Attitudes by Generations. MA Thesis. Hanyang University. 2016
- [6] Sunkyung ParK, Naeyoung Lee. “How Does Economic Inequality Develop into Individuals' Welfare Attitudes?”, *Modern Politics Study*, vol 11, no 3, pp. 5-32. 2018
- [7] Kertzer, D. I. “Generation as a Sociological Problem”.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9, pp.125-149. 1983..
- [8] Satbyeol Choi, Korean Generational Chronicle from Sociology of Culture Perspective, Ewha Women's University Press, 2018.
- [9] Mannheim, K. The Problem of Generations. In P. Kecskemerti (Ed.).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pp. 276-320.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52
- [10]Ryder, N.B. “The Cohort as a Concept in the Study of Social Chan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30, pp. 843-861. 1965.
- [11]Shinyoung Kim. “A Exploratory Study on the Landscape of Korean Welfare Consciousness”. *Social Science Research*, vol.29, no.1, pp. 25-57. 2016.